

2018년 6월 2일 “(성경의 큰 숲 보기 13) 사무엘서: 다윗 언약과 왕권 확립”(삼하 7:8-17)

<도입>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 왕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하는 것, 즉, 주님의 부왕이 되어서 세상에 사랑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일에 실패하여 주님의 유업을 잃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 배워 자신이 주님의 아들이 됨과 왕 됨을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의 왕국배경에서 사무엘서가 전하려는 영적 교훈을 개관하겠습니다.

[1] 다윗의 기름부음

삼상 16~24 장까지 다윗에 대해 왕으로서 조명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다윗에겐 왕직을 위한 세번의 기름부음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 (1)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 집을 찾아와 막내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곧 왕이 된 것은 아니고, 선택을 받았으니 정체성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 (2) 사울이 죽은 후 그의 후손들이 왕의 혈통을 지키려는 가운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워집니다(두번째 기름부음(삼하 2:4)). 그리고 7년반을 다스렸습니다.
- (3) 사울의 후계자, 이스보셋이 자기 편에 의해 살해되면서 모든 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며 세번째 기름부음을 받습니다(삼하 5:3).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2] 다윗 왕국의 확립

다윗 왕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겉으로는 별로 달라 보이는 것이 없지만 사무엘서는 다윗 왕국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나타난 본문이 삼하 7 장입니다.

본문에는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이 나옵니다. 주님의 언약이란, 창조행위 자체가 언약이며, 아담/이브, 노아, 아브라함, 모세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과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의지”를 담아 주신 말씀입니다. 이 연속선상에서 다윗 언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언약의 배경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내 말을 먼저 들어 보렴!’ 말씀하십니다.

- (1)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겠다(8 절)
- (2)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9 절)
- (3) 한 곳에 정착시켜 안전(안정)하게 해주겠다(10 절)
- (4)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안하게 지키겠다(11 절)

➔ 다윗 왕국이 강성해지는 조건입니다. 이 위에 미래 왕국을 향해 주시는 언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 (1) 11 절 후 ‘너의 집안을 왕조로’ → house 가 아니라 dynasty 를 뜻하심
- (2) 12 절 ‘너와 네 몸에서 나올 후계자를 세워서’ 솔로몬과 후대 왕들...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 (3) 13 절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 dynasty)
1 차적: 솔로몬의 성전 건축; 2 차적: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을 위해 영원한 왕국을 성취
- (4) 14 절 - 솔로몬 포함하여 인간 왕들의 죄에 대해 다스리심 → 열왕기서
- (5) 15-16 절 ‘네 집/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
➔ 다윗의 후손, 미래 메시아가 세울 하나님 왕국을 말함(마 12:28 임했다)

창조 이후로 주신 언약들과 다윗 언약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과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했는데, 다윗에게서 무엇을 회복 시키시려는 것일까요?

[3] 아들됨과 왕 됨(sonship & kingship)

신앙 안에서 가져야 할 정체성의 기본은 '자녀 됨'과 '왕 됨'입니다.

진정한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순종합니다.

진정한 왕은 섬겨야 할 직분과 사람에 대해 사랑과 희생을 감수합니다.

창 1:28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수행자(부왕)로 삼으신 것입니다. 에덴에서도 아담에게 이름도 붙이고, 가꾸고 지키는 부왕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인간의 kingship 의 원형입니다. 세상 제국의 kingship 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 사랑을 누렸지만 고난과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10 년의 억울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 죄(밧세바 간음, 우리야 살인)로 자신과 백성과 하나님께 타격을 입히고 가정과 국가에 불행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에 일어난 곤경(13~20 장)을 생각하면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그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악행과 피해 안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보면 그는 복음을 잘 깨닫고 행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진 복음적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요 왕직을 수행하는 왕은 자기 잘못으로 불행해지든, 남이 잘못해서 환란이 닥치든, 진노하심으로 징계를 받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유업의 축복이라는 복음의 길을 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은 아들 됨과 왕 됨이라는 인간의 두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 이유로 다윗 왕국은 공동체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을 BC1000 에 이미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됨과 왕 됨을 다윗의 교훈을 통해 배우며 삶에서 이루어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성경에 나온 다윗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2.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조건, 자녀 됨과 왕 됨이 있습니다. 위 글을 참고하여 보면서 나는 어떤 주님의 자녀가 되며, 어떤 왕 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나누어 보십시오.